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청교회 사서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근권

부활

내일의復活(부활)을 위하여
오늘을 맡아 버린다.
매일 무덤을 만든다.

예수님,
인류의 완전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철육 세계 내리 가셨네
내일의 찬란한 영광을 위하여...

단 사흘 후,
인류의 모든 영광
하늘과 땅의 영광이 회복 되었네
He has risen!(그는 살아나셨다)

아 가심 복한,
부활의 아침
생기 넘쳐 온 산(산야)에 흐른다
인류 인생 새롭다!

수단에서 김영대 선교사

수리남 선교지 방문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선교위원회는 우리 교회 안석철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수리남의 향후 선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4일부터 23일까지 수리남 선교 현황을 방문 시찰한다.

수리남은 남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모슬렘(19.6%)과 힌두교도(27.4%)가 인구의 거의 반 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슬렘과 힌두교인을 향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이다. 이 선교의 문은 편모가정이 27%에 달하고 실업률이 33%에 이르는 수리남

의 불안한 사회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더욱 활짝 열려져 있다.

1987년 파라과이에 파송된 후, 1990년 3월 수리남으로 사역지를 옮긴 안 선교사는 그동안 학교 사역과 현지인 교회의 사역, 인디언 부족 전도 사역 등에 매진해 왔다. 충현의 성도들은 금번 방문단의 시찰을 통해 수리남의 선교 상황이 잘 파악되어 향후 수리남 선교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금번 방문단은 이승수 목사, 노광현 장로, 박영식 장로, 김광남 장로 등 4명으로 구성되었다.

수지 지역 외국인근로자를 찾아서

17교구·외선부 연합 전도

10일과 17일 두 차례 실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북 및 동남아시아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도하여 이들이 선교사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양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외선부(외국인선교부)와 그동안 외국인근로자 전도운동에 앞장서 온 17교구가 연합하여 수지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실시한다.

4월 10일(토)과 17일(토) 2회에 걸쳐 실시되는 금번 전도활동은 주로 수지지역의 기구공단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동북 및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가서 현지인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겨운 일인가를 잘 아는 선교사들은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임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랑 어린 관심과 전도, 그리고 양육의 사업은 이들이 현지선교의 교두보 및 선교사로 자라가기까지 전교회적인 차원에서 꾸준히 확산되어가야 할 것이다.

99년도
교회학교 운영안 발간

교육연구소에서는 4월 중으로 99년도 교회학교 운영안을 발간한다. 매년 발간되는 이 운영안이 각 교사들의 세심한 주의와 창의적인 관찰에 의해서 교회교육의 계속적인 개선을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사들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청송교도소 전도집회
4월 20일 교도소 강당

고정전도회는 4월 20일 청송교도소 강당에서 전도집회를 갖는다. 수용자 500명과 지도 직원 50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금번 전도집회를 통해서 다수의 수용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돌이키는 은총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금주의 교구영성훈련

13일(화) 7교구
15일(목) 8교구
16일(금) 13교구

25일에 제2차 학습세례식
오늘과 18일 주일에 교육받아야

99년도 제2차 학습세례식이 4월 25일 천양에메시에서 진행된다.

학술, 세례, 입교, 개종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교구나 부서에서 신청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학습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다. 모든 일정은 오른쪽표와 같다.

날짜	시간	학급	장소	세례, 개종, 입교	장소	유아세례	장소
4월 11일 (주일)	12시 15:00-15:30	가정교도 (일반인 유학)	교도소	세례 (특별한 유학)	교도소		
4월 18일 (주일)	12시 15:00-15:30	가정교도 (특별한 유학)	교도소	교도소 (일반인 유학)	교도소		
4월 18일 (주일)	12시 15:00-15:30	가정교도 (특별한 유학)	교도소	가정교도 (일반인 유학)	교도소	유아세례 (유아 유학)	교회
4월 25일 (주일)	12시 15:00-15:30	가정교도 (일반인 유학)	교도소	가정교도 (특별한 유학)	교도소		
4월 25일 (주일)	12시 15:00-15:30	가정교도 (일반인 유학)	교도소	가정교도 (특별한 유학)	교도소		

4월 20일은 장애인들의 날

사랑부·애바다부 장애인주일 행사

4월 20일은 장애인들의 날이고 4월 18일은 장애인주일이다.

과거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들은 많이 씻겨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중에도 예수님의 눈으로 장애인을 보는 마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 현실은 장애인 가까이에 있지 않으면서 태도에서부터 장애인을 세습자로 돌리는 것을 꾸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그릇된 태도를 벗어버리고자

우리 교회는 이웃 사랑을 교회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실천하고자 애를 써오고 있다. 18일 장애인주일일을 맞아 애바다부와 사랑부는 본당 앞에서 성도들에게 차를 나누어 주며 지체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고 오후 천양에메시에는 특별한양을 드릴 예정이다. 그리고 충현복지관에서는 서로서로에서 주최하는 장애인들의 날 행사 및 장애인 체육대회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

'부활'

한국기독교오페라단
창단 공연

4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
4월 17일(토) 오후 5시

갈릴리움

순수 기독교 오페라를 추구함으로써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에게는 은혜를 체험케 하는 두 가지 소임을 원하는 한국기독교오페라단 창단 공연이 이미 홍보된 대로 4월 15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갈릴리움에서 거행된다.

창단 공연 작품은 뮤지컬 칸타타로서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에서부터 부활하시기까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자들이 낙심에서 참예자로 거듭나기까지의 모든 장면들을 펼쳐 연주하게 될 이번 공연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



김창인 목사

여호와와의 탄식과 권면

(이사야 40:27-31)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갈 값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1.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여호와와의 탄식이 어떠합니까

(1) 사정을 몰라 준다고 의심하나 이것이 켈일이라고 탄식하셨습니다
“...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27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가 약속한 이방나라에 제산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들의 손에서 맞아 죽기도 하고 굶고, 헐벗고,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정을 어떻게도 몰라 주시느냐? 자기들의 사정을 몰라 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권능도 정발 있는 것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의심하게 되었습시다.”

(2) 앞 길을 열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나 이것이 켈일이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 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니라”(27절)
사람들은 자기가 좀 잘되면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고 자기의 잘되는 것만 보면서 교만하고 또 자기에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지도 않고 자기의 어려움과 같은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교만한 생각을 품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자기가 표준이어서 교만했다, 낙심했다, 원망했다, 타락했다 하면서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상과 싸하여 타락하는 자들에게 저 떨어지게 되었습시다.”

2.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여호와와의 권면이 어떠합니까

(1) 여호와를 버려 버리고 고평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이사가 선지자를 통해 탄식하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①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28절)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풍성하신 재산과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방비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②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입니다.
“...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

시며...”(28절)

하나님은 만물을 지탱하시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일을 하시고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내버려둘 정도로 힘이 없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의심하여 평범의 말을 토해느냐?”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 주셨습니다.

③ 멸칭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 멸칭이 한이 없으시며...”(28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요구에 대한 동정적 이해를 말해 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계할 만 한 지혜를 갖고 계시며 그 지혜는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거나 꺾을 자가 없으며 오직 감사에 이르게 됩니다.

④ 피곤하고 무능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라”(29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어 일을 시키고요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회개해서 사람을 채용할 때 건강한 사람을 뽑습니다. 교회의 마관까지입니다. 사람은 건강한 자와 지식이 많은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한 자를 찾아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병든 사람에게 무식한 사람만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피곤한 자란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을 아는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둘째로 피곤하고도 충성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뜻입니다. 간판만 내걸고 일하는 척하지 않고 사역이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빼가아도도 충성하다가 피곤해진 사람입니다.

셋째로 환난을 당한 사람을 쓰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기 때문에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끄집어 내시 쓰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끄집어 내서 쓰시고 요셉을 옥에서 끄집어 내서 쓰셨습니다.

(2)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30, 31절)

첫째 사람인 ‘소년’이란 피곤을 모르고 원기 왕성한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들은 하루 종일 일하다가도 한참 자고 일어나면 기쁘게 됩니다. 그러니 피곤을 모르고 원기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년이라도 영양부족이나 과로로 일하다보면 얼마 안 가 피곤해 쓰러집니다.

둘째 사람인 ‘장정’이란 모든 면에서 혼란을 잘 받은 인생의 정초에 있는 원숙한 인격자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을 받았고 많은 경험을 쌓아서 실수하지 않는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이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져 실패하고 망한다는 말입니다.

셋째 사람인 ‘오직 망하지 않는 사람’이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러러 보면서 겸손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더욱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집니다.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고귀하고 기뻐하시네 나같이 때문에 죄인들 버리지 아니하시니 감사하구나” 하나님을 앙망하므로 겸손해진 사람의 입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가솔이 되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자기가 은혜를 못받은 것은 기한이 되지 않았거나 자신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고 기다립니다.

셋째로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사람이 보지 않아도 말과 행실에 조심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는 자신의 절개를 지킵니다.

넷째로 자신의 모든 사정을 항상 주님께 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사정이 어떻습니까”를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도와 주겠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다고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②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니까?

“... 새 힘을 얻으리라...”(31절)
‘새 힘’이란 깨끗한 힘을 말합니다.

망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새 것입니다. 거기에는 때가 묻지 않았습시다.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받는 새 힘은 첫째로 건강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십니다. 둘째로 지혜의 힘입니다. 셋째로 물질의 힘입니다. 땅 위의 물질을 돈에는 죄가 묻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때론 지니 깨끗한 물질을 주십니다. 넷째로 권세의 힘입니다. 다섯째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③ 새 힘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성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고도 다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만 높이 올라갑니다. 즉 다른 사람이 상상도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하는 성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어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을 쓸데없이 거짓말로 모략하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둘째로 곤비하며 피곤치 아니합니다. 달음박질을 해도 곤비하여 쓰러지는 법이 없고 걸어도 피곤하도록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중단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실력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늘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렵고 괴로운 일이 종종 닥쳐옵니다. 본래 약한 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강하고 뚱대 자들도 쓰러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앙망하므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조심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여 주님이 약속한 새 은혜를 기다리면서 마음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이른, 작은 일에 “하나님 불로 아 주세라” 라고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살다가 세상 끝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모신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김성관 목사

선택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27-28)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두 가지의 예정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 피한 것으로서 곧 죽는 것과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나 여기에는 그야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든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피한 두 가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온유의 자리를 마련 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죄를 위해 단번에 죽게 함으로써 장차 우리에게 미칠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도록 역사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죽음과 죽음 후에 나타날 두 가지의 다른 결과도 예정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7-28절).

되돌릴 수 없는 죽음

모든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오면 죽을 이진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죽은 여인네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 12:7).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이 죽음의 사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변화 시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에서 피할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임의대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 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 8:8).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한 번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실들에 비추어 우리는 죽음을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죽음

우리는 살아 가면서 여러 상황에 여러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들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다음 기회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대부분의 일들에는 ‘다음’이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밭짓는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밭짓는 것을 처음 배울 때에는 흙을 뒤 들일 때도 있고, 흙을 너무 많이 넣거나 너무 적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번의 경험과 실습을 통해서 밭짓는 일은 익숙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은 밭짓는 일과는 전혀 다르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바로 그것으로 끝

리고 그가 책역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 53:5-6).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회생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요 3:15)! 예수님은 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돌아 가셨습니다. 그 분의 죽음은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일회적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한 번 죽음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단번에 이루어 진 것은 우리

에 속한 모든 자들, 특히 믿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심판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의 영광의 몸의 형제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행 1:11).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죄송을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3). 예수님은 다시 오실다. “불지자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 이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불 터럭에 닿아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여라 아멘” (계 1:7).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까지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 3:20-21).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적적 몸은 아주 천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향을 떠나 타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한 몸에서 완전한 몸으로,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변할 그 날을 맞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선택은 없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담대하게 심판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열망하면서 고대합니다. 기다리는 후에 우리는 주님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약속은 결코 미뤄지거나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죽음 앞에서 두 번째 기회란 없습니다. 선택은 없습니다. 이를 분명히 하여 바로 지금 준비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

죄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 번째 기회란 없습니다. 선택은 없습니다. 이를 분명히 하여 바로 지금 준비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니다. 죽음에는 ‘다음’이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죽음이란 단 한 번 지나가는 권도이며 영원히 돌아오는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잘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해 놓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산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약함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셨고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려 주기를 구하셨습니다. “천히 나가서 달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사 53:10). “내가 책역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리니” (벧전 2:24) 이 말씀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그가 절름이 되신 허물을 인함으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정결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

위를 사하시기 위한 그의 제물로됨이 완비했고 영원히 유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그밖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전혀 없이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고 변화 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영혼토록 그 능력을 결코 잃어 버리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후 5:10).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믿는 자들은 그들에게 행한 일에 대해 상을 받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게 되어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 25:31-46; 전 12:14; 롭 14:10-12). 따라서 이 땅

선교 / 전도

선교

선교관 입구 계시판
새롭게 단장 중!

선교관 입구에 들어서면 좌우에 커다란 계시판이 켈링한 모습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선교관을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저 기 계시판 맞아?'

오랫동안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었던 계시판이 선교위원회와 대학부의 형제 자매들의 협력으로 새롭게 단장되고 있다. 우리 교회 선교사 현황 및 단기선교, 세계 선교 동향 등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전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지기를 바란다.

4월중에 새롭게 선보일 선교관 입구 계시판,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

먼저 남녀전도회 주관으로 체계적인 전도활동 계획을 세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박영성 장로: 이전의 전도활동도 나름대로 실행을 기울인 것이었지만 거기에 들어간 인력과 재정 등에 비해 결과는 미미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고민하며 기도하던 끝에 이제는 과시와 낭비로 끝나기 쉬운 대적인 전도활동을 지양하고 실제적인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율적인 전도운동의 뿌리내리기'가 시작되어야 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주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독려하는 것보다는 각 전도위원회와 전도회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이 전 교회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어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금번에 수립된 전도 계획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지요?



이현정 장로: 무엇보다도 전도는 어떤 특정한 노후에서보다는 '기도'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중현의 모든 전도회원이 평생 전도인이 되자는 것이 금번 전도계획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전도회원 각자가 전도인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는 전도대상자를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꾸준히 접촉하며, 이 과정에서 모종의 협력해야 할 문제들이 생기기엔 연합회 차원에서 교수 등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교구의 전도의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요 전도대상으로 삼아 전도하는 운동도 뜨겁게 일어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외국인노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비선교자들이 아닙니까? 이 부분이 더욱 강조되고 시행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부활절 행사를 마치고
기쁨과 확신에 찬 부활신앙 안에서
복음 증거자로 우뚝 서길

부활의 소식이 아직은 생소한 외선부 형제 자매들이 다같이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외선부 교사들은 기도하며 부활절 아침을 맞이했다. 강단 옆 벽면에 이천년 전 이 땅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 죽음, 부활의 행적을 다시금 더듬어 볼 수 있는 정교한 그림을 장식하여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나라를 달랠바구니에는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각자 준비해온 달걀들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생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집회시간에 정은희 전도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7-19절 말씀을 통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전부 헛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고,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했다.

집회 후에는 부활절 특별순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 충국님의 한 자매가 부활 시를 낭독하셨고 이도네시가, 형제 자매들이 준비한 찬양 순서도 있었다. 또한 몇몇 스리랑가 친구들과 교사들이 '그는 여호와'라는 찬양곡의 가사에 각 나라 이름을 넣어서 다같이 불렀는데 하나니라는 특정한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인 한 자녀라는 사실이 새삼 가슴에 와닿았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아들을 내어 주어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과 능력의 부활로 우리에게 은총의

외·선·부

삶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특별히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해 할렐루야오케스트라의 목관 5중주, 대학부의 NMC, 트럼펫 연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찬양과 연주를 들으셨는데 우리 외선부가 참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제는 성경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이천년 전의 갈보리 동안 위 십자가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철저한 부활신앙의 확립과 고백들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더 나아가 머지 않아 본교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들이 기쁨과 확신에 찬 부활의 신앙을 갖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들을 통하여 부활의 소식이 그들의 나라와 더 나아가 온 누리로 번져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린다. (오지현/외선부 교사, 청년1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외선부 교사들

"4월 9일 금요일 금요집회 후에 외선부 교사들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김영주 장로님의 힘찬 광고가 있었다. 그동안 매주 수요일에 후에 10여명의 교사들이 배대방, 정은희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연중무휴로 작년부터 수요일교회로 모여 교사들의 뜨거운 기도소리가 아멘들을 두 시간 동안 가득히 채워 있었다. 이제 새롭게 이송수 목사님이 1, 3, 5주를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고 나머지 주는 전도사님들이 인도하는 기도회로 모이게 된 것이다. 외선부 교사들의 많은 참여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질 교사들의 모습들이 기대된다. (이부용/외선부 교사)

남녀전도부 작업회

남녀전도회원 모두가
평생 전도자로
살아가는 기쁨 알도록

한국 교회 초창기부터 전도와 개척을 통한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는 항상 남녀전도회의 뜨거운 헌신이 있었다. 이들은 기도는운동의 주역이었고 전도운동의 주역이었고 교회활동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교회가 현실적인 안착감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기도와 전도보다는 친목과 교제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물론 친교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기도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전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친교는 교회 이기주의와 부시 이기주의라는 오명으로 나아가는 첩경이다.

따라서 금번에 전도위원회 산하 남녀전도부에서 준비한 전도의 활성화를 위한 99년도 전도활동 계획에는 큰 의미가 있다. 이에 자리를 함께하여 전도 계획의 배경과 내용을 들었다.

일 시: 1999년 4월 3일 오후 1시

장 소: 출판부

참석자: 박영성 장로(전도위원장)

이현정 장로(남녀전도부장)

이형수 집사(남녀전도부연합회 회장)

반연숙 권사(남녀전도부연합회 부회장)

금번 전도 계획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형수 집사: 일단 전도활동을 한다고 할 때에 각자가 격려를 받고 마음으로부터 드나들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함이다. 이에 따라



각 교구에서 전도대가 구성되어 월 1-2회 노방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던 종래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 전도위원회는 한 번 이상의 전도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소환 10번 이상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할 것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이현정 장로: 교구별 영성훈련소에 참석하는 성도대수가 전도회원인데, 이때에 특강 주제로 전도와 선교를 다루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교구의 협력을 구해야겠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전도와 선교를 주제로 하는 말씀을 많이 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반연숙 권사: 사실, 특정한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전도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도위원의 차원에서 전도훈련을 체계적으로 시켜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도회의 전체 활동과는 별개로 나름대로 꾸준한 전도해는 팀들은 이 전체 전도계획에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박영성 장로: 중요한 것은 '생명원'에 대한 일정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각 교구별로 5-6명 정도의 전도 대상자만 데려올 수 있다면, 11월 중에 가서는 1천여명의 새신자를 초청하는 전 교회적인 행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간 점검과정들을 꾸준히 가지고자 합니다. 온 성도들이 전도가 장기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함께 하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영적인 구심점에 분명하도록 협력해 가야 하겠지요. 그리고 일단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분명한 사명 의식이 지도부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시는 이 세 분의 역할이 참 중요함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체계적인 설명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에게

친구가 소중한 이유

진은 혜(중등1부)

김구술(중등2부)

안녕, 어느때 쌀쌀한 날씨도 지나가고 낮가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와 여기저기에서는 새싹들이 피어나는 소리가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구나! 내가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에게 편을 드는 것은 이 편지가 너희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었으면 해서란다.

지금 우리 나라는 경제불황 속에 모두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어딘가에서 힘들어 하고 있을 너희 모습을 생각하니 눈이 눈물이 맺히는구나! 용기를 내, 경제불황으로 인해 너희들을 도우려고 나서서 사람의 발길이 뜸해졌지만 너희 맘 속에 자리잡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눈물로써 너희 모습을 지켜보신다.

사랑하는 친구들!

너희 모두가 용기를 갖고 살아간다면 주님께

는 얼마나 기뻐할까? 비록 신체가 부자유스럽다고 할지라도 밥을 먹 못 움직여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힘을 내!

작년 겨울, 교회에서 '사랑의 힘터 교회'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 그곳 친구들은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제대로 일어설지도 못하는 아이들이었어! 그 아이들 앞에서 울음으로 기쁨을 전해 주려 했을 때 난 정말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을 발견했단다. 그곳 친구들이 나에게 보여 주었던 사람들이 또한 너무나 뜻밖의 모습이었

단. 한 사람 한 사람 호흡을 맞추기 위해 힘쓰면서 소리를 내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지!

나는 한때 장애자들 곁에는 다가가기도 싫었어. 하지만

사랑의 힘터 교회 아이들을 만나고 난 뒤부터 고통받는 너희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어. 너희들 마음 어딘가에 박혀 있을 큰 뜻을 배어 줄 사람은 어디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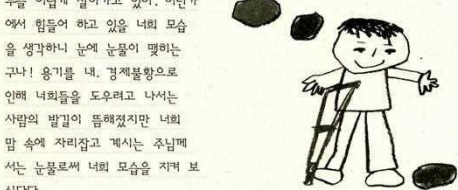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단다. 비록 지금 내 자신도 힘없는 빈수레와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 마음 속에 박혀 있을 뜻을 배 주기로. 그 뜻은 목수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배내지 못할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이 배낼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전령사로 너희 맘 속의 깊은 상처를 치료해 줄 의사가 될거야!

아!

지금 너희들의 고통과 외로움을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있다는 것을 알지마. 그리고 비록 힘들어도 항상 용기 잃지 말고 힘을 내! 어느 누군가가 너희를 용서하고 비난할 지라도 그곳이 살아야 할 바래.

사랑하는 친구들! 너희 모두는 그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친구들이야! 그리고 너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지마! 이 세상 모두가 너희들의 고통하고 당당한 모습을 바라 볼 수 있게 해 주라!

너희를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아! 너무나 불참고 '친구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 머리로는 알라도 말로는 잘 표현이 안될거야.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친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말아야. 그만큼 중요하다는거지. 사실 친구는 학창시절의 우리에게 는 더없이 중요한 존재야.

어른들께서 우리들에게 가끔 말씀하시곤 하잖아! 지금 저희들 나이엔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 누구보다 친구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말아야. 그 이유는 아마도 같은 세대의 때문인 것 같아. 같은 세대이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힘들거나 어려운 일, 기쁜 일도 부모님보다는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함께 나누곤 하잖아. 그러다보니 언젠나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를, 힘들 때면 어깨를 빌려 주곤 하는 친구를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친구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너무 기대기만 하는 것도 좋지 않은 태도야. 왜, 알지?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 친한 친구일수록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해. 주위를 둘러봐! 겉에서는 항상 너를 지켜보던 사람이 있는지, 남 모르게 나를 속시이 지켜 주던 사람이 있는지 말야. 있다면 당장 친구로 만드는 것 잊지 말고.

이! 가장 중요한 말을 잊을 뻔했어. 다시 한번만 주위를 둘러볼래! 네 주위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친구가 있다면 당장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일테니까 말이야.

성경 그림 그리기 우리가 그린 예수님 그림이 이스라엘까지

이שראל에서는 새로운 친원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외무부와 관광부, 문화부 등이 후원하는 가운데 전 세계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세계 어린이 성경그리기 대회'를 갖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에는 대사관 직원들이 직접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대회에 참가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제1 교육위원회 산하 부서들에서는 학생들이 그린 작품들을 모아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이שראל 정부는 각 나라에서 모인 그림들을 심사하

여 나라별 최우수작품 수상자들을 이스라엘로 초청할 계획이며, 각 참가 교회별 우수상 1명에게는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예루살렘에 조성된 '성서의 숲'에 우수작품 어린이의 이름으로 직수를 헌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שראל 국영 TV에서는 본교의 어린이 중 두 명을 선정하여 어린이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며 그림을 그리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촬영하여 방송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출품된 작품은 총 34점이며 그 중 몇 개의 그림을 소개한다.



◀ 다윗과 골리앗
(무단진 권)



◀ 예수님의 탄생
(조동진 김)



◀ 홍해를 건너
(신년부 이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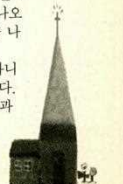
◀ 예수님을 맞이
한 사람들
(중등2부 김아영)

자녀신앙교육 생각하기 시간 지키기 어릴 때부터 바로잡아 주어야

교회학교 예배가 시작되어 사회자의 예배 시작 선 포가 울리나오고 찬양대의 목도송이 연주된다. 그러나 정작 자리를 채우고 있어야 할 학생들은 태반이나 도착하지 않은 상태다. 예배시간이 임박해서 심지어 예배시간이 지나가야 뒤늦게 도착하는 부모님의 차를 타고 오기 때문이다. 또 일찌감치 왔다가도 교회 부근을 아슬렁거리다가 시간을 잊어버리거나 친구들과 어울려서 오느라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여유있게 늦잠을 즐기 때문이다(때론 시험 공부로 과로한 경우를 제외하면). 때로는 아이들이 체근코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개인신앙에 관한 일에는 지극히 기민하게 움직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대충조거나 어른들의 바닷을 아이들이 그대로 답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각 교회에는 자기 교회의 이름을 딴 '○○타임'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엔 소위 '충만타임!'이라 일컫는다. 이는 교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던 대개는 약속시간보다 최소 30분 최대 수시간씩 늦게 나오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버린 것을 나타내는 자조적인 말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것이 관례가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다. 하나님과의 약속시간 지키기, 사람과의 약속시간 지키기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시간지킴기를 배워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겠다.



청년1부 가결연세미나

미혼의 20대 청년을 위한 가결연세미나 큰 만족 가운데 마쳐

충현기도원에서 350여명의
미혼 젊은이들이 모여
의미 있는 시간 가져

연애, 결혼, 가정에서
주님의 주님되심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 이제 막 결혼한 뜨끈 뜨끈한
신혼가정을 이룬 교사부부들의
간단한 연극 장면

청년1부는 지난 4월 4일부터 5일까지 교육관 5층 청년1부실과 충현기도원에서 제3회 가결연세미나를 가졌다. 참석한 자체를 모두 크게 만족한 시간이었다.

지난 97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가결연세미나는 금년 들어서는 청년1부뿐만 아니라 전교회적으로 미혼의 젊은이에게 새로운 관심을 끌게 되었다. 350여명의 참석자 중 다수가 대학부, 청년2부,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들이었으며, 마지막 평가에서 이구동성으로 유익했다는 평을 전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에게는 이러한 세미나가 매우 필요하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적 가르침의 결과로 주님의 주님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에서는 주님의 주님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관점과 관습을 따라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로 인한 그리스도인 공동체(특히 미혼인 젊은 남녀가 모이는) 내에서의 부작위를 또한 심각한 현상이다.

이제 가정, 결혼, 연애의 바른 성경적 관점을 배우고 진정한 교제의 풍토를 조성하여 이런 문제에 성경적으로 대처하여 서로가 속박할 수 있는 결혼으로의 걸음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1) 성경적 가정, 결혼, 연애의 관점을 배우도록 이를 모르는 데서 오는 손실(정신적, 육체적, 영적)을 예방하고, 2) 바른 관점 하에서 상대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세속주의에서 보호되도록 하며 3) 젊은이 공동체 내에서 바른 연애, 결혼의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진정한 영적 분위기가 가운데서 신앙적 성숙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는 자칫하면 경박하게 흐를 수 있다. 이를 조심하며 진지하게 무겁지 않게, 기대와 즐거움 가운데에서도 조심하며 절제하는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한다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며 진행한 이번 가결연세미나는 충현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다함께 모일 수 있다는 가능성성을 보여 주기도 했다.

실제적이고 이상적인 결혼에 대한 방향 제시

“충격적이다. 기존에 생각했던 결혼관을 뒤엎었다. 새로운 것 많이 느꼈고 감동적이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황규환(30, 청년1부) 형제의 생기를 말았다.

젊은이들의 의식태도를 조신한 설문내용 발표로 세미나는 시작됐다. 12시 30분경 이어진 이슬하 목사의 ‘성경적 자아관’이라는 주제강의는 세미나의 열거를 부추겼다. 청년들이 결혼에 앞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이슬하 목사는 말한다. 찬양예배 후 기도원으로 출발, 신생님 자신들의 결혼생활 사례발표가 있었다. 김혜정 신생님의 꾸미지 않은 말투와 부끄러움없는 솔직함에 청년과 신생님은 한마음이 되었다. 신생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안면의 시력의 모진 시정살이를 감당해야 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마다 눈물로 기도했다는 말씀에 모두 숙연해지기도, 저녁은 분임토의도 모자라 조별로 ‘만남에서 결혼까지’라는 주제의 토의 시간을 가졌다. 여섯 가지 경우의 만남과 헤어짐, 결혼에의 결정 과정들을 제시된 사례에 따라 각자의 의견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나누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세속적이기를 살펴 보았고 서로의 생각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임을 이해했다.

창세기 24장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를 묵상함으로 둘째날을 열었다. 새내기 부부의 이야기를 단극으로 판관, 꽃장인 사랑에 웃음과 부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기다리던 아기를 유산했을 때 부부가 서로를 위로하며 썼던 편지를 눈물 속에서 읽어 내려갈 때 시인이 그들을 더욱 하나로 묶어 주었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던 모습 속에서 참다운 사랑의 따스함을 느꼈다. ‘공동체 안에서’의 바람직한 이성교제’라는 제목으로 이어진 주제의식은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와 제언, 잘못된 교제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성, 스킨십(skinskip)의 문제, 공동체 안에서 모두에게 환영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성교제의 태도 등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으며 많은 금금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마음을 열어야만 시간에는 운동장에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추상적 개념이 구체적 개념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이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결혼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좋고 행복했다.”는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김/김정민 기자)

파택받고 교육에 참가하는 나의 각오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드러지기 위하여

원 웅 철(의매 장로, 12교구)

예수의 선한 일꾼 되기를

박 월 래(의매 안수집사, 4교구)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단련시키시길 간구하며

강 정 희(의매 권사, 13교구)



부족한 죄인이 장로로 피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회서신인 디모데 전후서, 디다스서를 다시 한번 읽고 새로운 각오를 하였습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맡기심이니”(딤후 1:12). 부족한 죄인에게 귀한 직분 맡기심은 충성되게 일하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좇게 되므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기기를 힘쓰라”(딤후 2:15)는 말씀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나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하라”(딤후 4:15)는 말씀을 통해 현재의 내 모습보다 영적으로 더욱 진보되고 성기는 모습으로 6개월 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기기를 기도드립니다.



부활절 아침 안수집사로 피택되었음을 확인하니 과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이기에 나를 둘러싼 세상의 인습과 고정관념의 늪은 껍질을 벗어 버리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이때에 안수집사로 피택받고 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믿고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앞으로 6개월간 엄격하면서도 치밀하게 꼭 짜여진 교육훈련에 성실하게 임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신실한 믿음과 지혜와 명철, 긴장과 열심을 다하여 주신 줄 믿고 기도하면서 양육을 잘 받고 경건의 훈련을 거쳐 마칠, 사랑과 믿음,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던 가운데 저에게 너무나 엄청난 직분을 주셔서 마음이 떨리고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신 주님, 또한 피택 권사로 이름을 올려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고개기 저절로 숙여집니다. 이것도 모두 다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더욱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 부끄러운 저를 좀더 단련시켜 주시길 날마다 간구하며 교육에 임하고자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딤후 4:13)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경자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체들 소식

성령의 때는 줄로 하나된 장로 수련회

김 천 재(창로, 영교육부 부장)

99년 전반기 장로 수련회가 지난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예배소사의 말씀을 중심으로 동래에서 열렸다.

장로 39명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이번 집회는 식목일 아침 교회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남포로 나누어 2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교회를 출발함으로 시작되었다.

상쾌한 아침공기를 가르며 서울을 빠져나와 아름다운 한계령을 넘어 중간 점심식사 후 잠시 설악산 산행을 하기까지 시종 웃음을 나누며 마음을 열고 교회 각 부서의 주요 현안을 소개하며 완충 속에 성령으로 하사되게 하심을 이루는 뜻 깊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비바람이 치는 초저녁 숙소인 화진도 군인 휴양소에 도착하여 읍영식 장로의 인도로 미리 예배하였는데 예배소사를 목상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 서로 의존하고 보완하고 존중함으로 교회 일치를 이루어 주님의 날까지 한뜻 되어 달려가기를 기도하였다.

이번 저녁집회에서는 이동하는 차 중에서 말씀하여



연습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의 여성 찬양이 수련회의 가장 인상깊은 은혜의 체험으로 남기도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는 엄밀한 장로의 인도로 예배소사의 거룩한 삶에 대해 목상하며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으며 영동지방의 기상 악화로 서둘러 귀경길에 오른 일

행은 기도원에 들러 노광현 장로의 인도로 폐회기도회 후 교회로 돌아옴으로써 수련회를 모두 마쳤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이번 수련회 동안 장로 부인회에서는 내조의 영적 책임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당회가 열리는 같은 시간에 교회에 모여 교회와 당회를 위해 특별기도회를 갖기로 한 일이다. 참으로 감동되는 결정이었다.

특히 당회장 목사와 교역자 일동, 그리고 권사 회로부터 몸심양면의 성원에 힘입어 마음과 기도로 동참해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과연 교회의 본질이 무엇임을 피

를 우리 주님께 교회로 나누고자 하는 생각하는 값진 시간이 되었음을 모두가 주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지체들 소식

영아부

부활로 우리 구하신 주님께 감사

영아부 아기들 모두는 고난주간 동안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작은 정성으로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였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신생인들의 정성이 담긴 선물(단감)로 아기들을 맞이했다. 부활로 우리를 구하여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송해경 통신원)

유지부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유지부 신생인들이 정성껏 준비하신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볼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주일이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십시오"는 전도사님의 절문어에 "네"라고 확신있게 대답하는 귀한 어린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는다. 부활절을 생각하는 그림 그리기 행사도 2부에 열렸다. 하얀 도화지에 어린이들의 부활의 고백이 가득하게 담길길 기도드린다. (조연희 통신원)

중등1부

찬송가부르기대회를 마치고

지난주 예배 후에 찬송가부르기대회를 하였다. 3월 셋째주에 있었던 예전에 비해 9개 반이 분승에 참가하게 되었고 최후 심사를 거쳐서 오는 예배 주일이 될 예정이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함께 바이올린, 피아노로 하나하나 찬송을 드리는 친구들의 모습이 참 귀웠다. 찬송가부르기대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범진 통신원)

중등2부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되는 예배

부활절을 맞이하여 중등2부에서는 예배 후 시 낭송과 중창단의 찬양으로

사랑 관계를 이기신 예수님을 높이여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교사회의 시간에는 예배 전 교사준비기도회와 장기 결석자에 대한 대책을 과별로 토론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예배 참여를 돕기 위해 교사들이 출석수첩하여 기도회에 참여하고 예배 전 찬양에 보다 비중을 두어서 교사와 학생이 일체가 된 참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손은경 통신원)

중등3부

우리의 부활절은...

지난 4월 4일, 중등3부는 색다른 부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 듣기, 예수님의 7일간의 행적에 대한 모자이크 꾸미기, 역삼교와 교회 주변으로 나가 노방전도 하기, 뒤가 색다른부르기? 비록 항상 들어왔던, 늘 맞이했던 부활절이지만, 반 별로 정성껏 한 강 한 장 꾸미고 모자이크를 보면서 듣는 예수님의 행적과 미리 준비해 온 달걀과 함께 전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친구들에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다시 사시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직접 느끼며 감사드릴 수 있었던 기회였으니까요. (송미경 통신원)

고등부

예수 초청 큰잔치

고등부 총동원 전도주일이 다가왔다. 4월 25일 13:00~14:30에 갈릴릴리에서 초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초청 포스터 인원은 1000명이고 복음화 '비전 7000: 세상에 무를 퍼뜨리는 삶'이다. 3월 7일부터 이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43개 돌로스는 학교마다 모여서 전도활동을 실시했고, 개인은 '테니스 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집회시간 전 5분 간을 교사와 학생 전원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였다. 고등부 지체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란다. 총동원 전도주일 일회에서는 온몸을 기도로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고등부 신생인들을

위해서, 총동원 전도주일 행사가 주님 감사의 시간을 대로 진행되기를 위해서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한다. (지영희 통신원)

3교구

바나바와 같은 구역식구들

4월 1일 바쁜 생활 속에서도 도곡2구역 식구들이 읍성을 한가지씩 정성껏 준비해서 장영숙 권사님에게서 풍성히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요 13:34, 35 중심의 서로 사랑하라는 교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 서로를 돌아보며 세워 주는 도곡2구역은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이웃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백익진 통신원)

4교구

영성훈련

총련의 성도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좋은 교회에서 시간시간 전도의 말씀으로 양육받는다. 그 중 한 가지가 좋은 기도원에서 봄이든 꽃을 보며 영성훈련을 하는 것이다. 새색을 내며 꽃을 피우려는 봄의 향기처럼 우리들의 시들었던 영들이 활짝 피어 오를 수 있도록 뜨겁게 열기를 붙여 넣어 주시니 얼마나 행복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바를 사도처럼 신앙 인격을 키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해져 나가기기를 마음 깊이 새겼다. 눈물로 손잡고 합심되게 해 주리들의 간절한 기도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오후에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 우리는 다같이 충분한 은혜와 기쁨을 받고 동산을 내려갔다. (염미숙 통신원)

12교구

삶을 통해 십자가 나타낼 것 다짐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에 우리 자

신을 조망해 보는 시간을 갖고 부활절을 맞아 교구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다.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는 시 낭송에 이어 교구성가대의 주님께 영광 찬양이 있는 후 장로로 피택되신 전신사 가족의 특송이 있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를 나타내며 나는 다는 교구 목사님 말씀 후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한 떡과 음료를 나누며 자기자기를 즐거움 시간을 가졌다. (이규숙 통신원)

14교구

할렐루야!

얼마 전 장래에 있는게 특별히 감사할 것은 살뜰찬양대의 순종의 모습이 있다. 장래는 본래 예정에 없는 것이어서 갑자기 당한 일에 모든 대원들이 각자의 사정을 무조건 뒤로 하고 일관, 발인 예배는 물론, 장지에서의 하단 예배까지 찬양으로 예배를 수종드는 헌신이 이루어졌다. 정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힘든 일인데, 그 귀한 일들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시는 살뜰찬양대원들을 위해 주님께 큰 사랑을 예비해 놓으셨으리라. (이아나 통신원)

15교구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생각했다

하인이 주일에 대하여 방자함처럼 피조물인 인간들이 조물주인 예수님을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판단하는 지욕을 누누를 위해 견디셨을것을? 급기야 죽을 때까지 다 담았으니 주님 대원들이 우리들의 성한 마음이 지워받았다. 예수님이 가셨던 자로마다. 은혜가 떨어지고 곤고한 인생들이 그 혜택을 입었건만 오늘날의 우리들의 발자취마다 떨어진 것은 이웃과 형제들에게 남긴 상처들이 아닌가? 구역에서 겉돌다 이사하는 성도를 생각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한다. (한숙경 통신원)

교회소식 / 목·정발령

●알림

- 제2차 학습세례식 안내 /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개종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오늘까지 교구 담당 구역에서 신청하시고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함조)
- 만도린연주회 대원 모집 / 기타 연주 가능한 성도들과 기존반 신입대원 모집합니다. - 문의: 이연은 집사(3463-0434)
- 출현교회 성가회 정기모임 / 문의: 564-4885

●모임

- 장로 회오세례기도회 / 13일(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 안수집사와 교로세례기도회 / 12일(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 주일오후기도회 / 오늘 15:00, 갈릴리움
- 전도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선교관 405호
- 불사위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선교관 505호
- 기획위원회 월례회 / 19일(일) 19:00, 선교관 301호
- 기획위원회 월례회 / 오늘 19:00, 선교관 301호
- 결장전도회 월례회 / 오늘 15:00, 메추리기울
- 교정전도회 월례회 / 오늘 주일오후기도회 후, 갈릴리움
- 성령인전도회 월례회 / 15일(목) 새벽기도회 후, 성령인전도회실
- 권사회 제2차 월례회 / 14일(수) 1부예배 후, 사랑부실

●남녀전도회

- 1부 월 1 / 17일(토) 19:00, 세영가든
- 2부 월 10 / 17일(토) 18:00, 주전장성교회(997-4244)
- 3부 월 17 / 오늘 15:00, 교구모임장소
- 4부 월 2 / 17일(토) 19:30, 세영가든(563-1334)
- 5부 월 2 / 16일(금) 금요일회 후, 교육관 109호
- 6부 월 9 / 15일(목) 19:30, 가문술(사봉동)
- 7부 월 16 / 오늘 교구모임 후, 영아부실
- 8부 월 4 / 18일(다름유니) 15:00, 강령규 집사(536-7098)
- 9부 월 5 / 18일(토) 19:00, 탁아부실
- 10부 월 7 / 15일(목) 19:30, 박동진 집사(484-3328)
- 11부 월 1 / 오늘 교구모임 후, 탁아부실
- 12부 월 2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 13부 월 4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 14부 월 5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 15부 월 6 / 오늘 교구모임 후, 갈릴리움
- 16부 월 7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 17부 월 8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107호

- 18부 월 9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414호
- 19부 월 10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201호
- 20부 월 11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307호
- 21부 월 14 / 오늘 교구모임 후, 만나교회
- 22부 월 15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 23부 월 16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 24부 월 1 / 13일(목) 10:00, 교회 동문 앞 출발(청계산)
- 25부 월 4 / 13일(목) 11:00, 갈릴리움
- 26부 월 4 / 15일(목) 11:00, 영아부실
- 27부 월 9 / 13일(목) 11:00, 동구봉 정문 앞(문의: 991-3362)
- 28부 월 13 / 15일(목) 11:00, 손유배 성도회(605-7741)
- 29부 월 15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 30부 월 1 / 13일(목) 10:30, 사랑부실
- 31부 월 4 / 13일(목) 10:30, 장혜정 집사(484-3328)
- 32부 월 10 / 13일(목) 10:30, 박재경 권장(997-4089)
- 33부 월 12 / 오늘 19:00, 갈릴리움
- 34부 월 14 / 13일(목) 10:00, 최진자 집사(484-3328)

●결혼

1. 김경환 군(강양학 성도, 청정심 성도의 아들)과 송순아 양(송수정 장로, 정운송 권사의 딸, 10교구) / 13일(목) 12:30, 갈릴리움
2. 오무석 군(오세길 집사, 유종순 권사의 아들, 1교구)과 백희성 양(백남준 씨, 김진숙 씨의 딸) / 17일(토) 13:00, 갈릴리움
3. 손철승 군(손홍과 성도, 나임자 집사의 아들, 3교구)과 유승연 양(유규영 씨, 오세일 씨의 딸) / 17일(토) 13:00, 담배당(장동훈, 512-0100)
4. 조석환 군(조성용 집사, 전옥순 권사의 아들)과 김수정 양(김원복 집사, 임용재 권사의 딸, 14교구) / 17일(토) 13:30, 영명교회(개봉동)
5. 임동현 군(임정환 성도, 정진자 성도의 아들)과 김경미 양(정영희 권사의 딸, 2교구) / 17일(토) 14:00, 남사초교회

●별세

1. 김성업 권사(사동성 장로 모친, 문경성 집사 시모, 13교구) / 2일 별세, 5일 장례

●주수 일 전회전으로 변경

1. 최영득 권사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리 501 동송아리1차 1과 102-1201 (☎) 0331-265-2255
2. 이숙교 집사 / 송파구 오금동 46-8 정현빌라 201호 (☎) 3401-0998
3. 김성호 집사, 김지현 집사 / (☎) 0331-261-4968

새·가·족·을·함·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497	심인아	1	청년2부	이승희(1)	511	김은숙	19	청년1부	이흥자(12)	525	이은숙	9	부디아	
498	이재형	2	바울	최봉순(7)	512	백순선	19	청년1부		526	권영민	19	대학부	양수정(19)
499	윤효남	2	에스더	최봉순(7)	513	이호준	19	청년1부	장정원(13)	527	정지수	19	청년2부	
500	김지현	2	바울		514	송연희	19	청년2부	박종철(3)	528	김희중	19	청년1부	
501	김재홍	6	베드로		515	윤선옥	19	대학부		529	김미영	19	청년1부	
502	정장숙	6	루디아		516	최재홍	19	대학부		530	신병철	5	청년2부	
503	김지영	6	공동부		517	김연진	19	대학부		531	조순옥	10	부디아	
504	김미선	11	청년1부	김필나(11)	518	이여진	19	대학부		532	손혜미	19	청년1부	
505	이광옥	13	소망부	김정철(11)	519	윤병진	19	대학부		533	이진선	19	청년1부	
506	김도현	14	청년1부	김자준(14)	520	문성제	19	대학부		534	민용섭	19	청년1부	
507	함소희	15	청년1부	김성욱(15)	521	민형석	19	대학부		535	이명경	17	에바다부	
508	신수정	16	소망부		522	윤효정	19	대학부		536	연규준	17	에바다부	
509	한영진	19	공동부		523	김진희	19	대학부		537	홍은주	17	에바다부	
510	전유라	19	청년1부		524	임옥순	5	소망부		538	손세임	19	청년1부	

※출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정발령

이제 우리도 기지개를 켜 때입니다

김인식

(목사, 15교구 서도)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언제 봐도 질리지 않는 화사한 개나리,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진달래,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히 줄 것 같이 만개한 목련, 해마다 미소를 가득 머금고 재잘거리며 발금 내다 가 서 있던 놀이터 골목을 빠져 나가는 우리 아이들.

빛 차례의 꽃샘 추위로 말미암아 때로는 얼어 붙을 때도 기도 하고, 지나치게 휘둘러 지던 황사 바람에 어찌걸 것도 같은 꽃망울들은 이제 우리에게 활짝 웃음꽃을 선사하였습니다. 이제 겨울을 지나는 그 누구

도 며칠 전까지 우리에게 실패한 기침 감기를 안겨 주었던 추위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때는 봄꽃들은 어깨를 활짝 펴고 마음껏 벌과 나비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도 거꾸레 움추려 있던 어깨를 활짝 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갇혀 있던 불타는 열기의 타전에서 마음껏 발산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속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 봄꽃들처럼 말입니다.



4월 18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3부예배

합창팀이 찬송중창단

(찬양곡목)

- 여호와께 감사하라
- 주는 우리를 지키시네
- 주여 오소서 · 시편 23편

◆ 4부예배

테너 이 현

(임마누엘한암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 나
- 예수 이름으로
- 주 예수 대문 밖에

◆ 5부예배

보이폴린 2중주

(별일요제스트라)

(찬양곡목)

-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 어린 양을 보라 · 찬사왕

출현 중보의 창

1) 김창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에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총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우게 하소서.

2) 14년 23일에 있는 수리남 선교지 방문을 통해 향후 수리남 선교 계획이 잘 수립되어 더욱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3) 25일에 거행되는 2차 학습세례식이 잘 준비되게 하소서.

4)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소서.

5)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소서.

6) 각 전도회가 전도하는 전도회로 거듭나 우리 교회가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7)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8) 이반에 선출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 주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9) 현재 진행 중인 99년도 전반기 교구영성훈련을 통해 교구식구들이 복음을 받아 하나님께 전진한 헌신과 영성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창인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 이흥성 김희수 이종대 박정환 김동식
- 김필수 전영훈 조희철 이숙수 정갑진
- 정원민 조문환 김희수 김동하 차병준
- 김병태 김인식 권상원 서광진 이숙하
- 정혜성 박노철 이준경

■ 협동목사

윤영태 박형용 노봉민

■ 선교사

이준교 안석원 김영태

■ 감도사

박진기 염현일

■ 원로전도사

이두란 최순복

■ 여전도사

- 정인희 현정남 장영자 임태주 김정자
- 백옥민 최지혜 손미희 송향자 신동화
-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을 한영준
- 박종하 김영숙 김복순 김연식

■ 교정전도사

박양태

■ 보육전도사

한승일 김영기 송원식 김창중 조재민

허유구 김병수 이종대 김윤식 김일송

■ 선교전도사

하소희 박태양 이석현

■ 원전도사

유병세 김형선 이기성 김철형 고은빈

하요셉 장기영